진도군, 5년간 교육혁신사업 178억 투입

교육혁신선도지역에 지정… 내년부터 본격화

창의융합인문·AI 국제교류등 3개 지구 조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군과 진도교육지원청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특별교부금 100억원을 포함해 총 178억원을 투입하고, 진도형 교육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이 나아갈 핵심 방향(비전)은 '학교를 잇는 블길교육과 지역자산을 품은 보배섬교육'이다.

이를 위해 작은학교를 통합운영하고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하며, ▲창의융합인문 ▲인공지능(AI)국제교류 ▲남도문화예술, 총 3개 교육지구를 조성해 지역 특성을 살린 미래인재 양성에 나선다.

또한 진도아리랑, 강강술래, 진도씻김굿 등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남도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고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돌봄, 복지, 진로를 연계한 지역 상생 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의 성장 기반을 촘촘히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 대학과 문화예술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학생에게는 더 넓은 배움의 기회를, 학부모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미래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진도=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산청군, 관광산업 활기… '반값여행' 효과

2개월간 1만31명 신청… 지역 내 소비 9억 달해

9월 방문자 70만7126명… 작년比 5722명 늘어

경남 산청군은 지난 9월부터 추진 중인 '산청 반값 플렉스 여행' 사업이 관광객 유입과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며 지난 2025년 재난으로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한국 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9월 산청군 방문자수는 70만71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해 이전인 2024년 같은 달의 70만1404명보다 5722명 증가한 수치로, 산청 관광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청 반값 플렉스 여행' 사업에도 여행객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31일 사전신청을 시작한 이후 이달 2일 기준 총 4615팀, 1만31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2903팀이 정산을 신청했으며, 지역내 소비금액은 8억9416만원, 모바일 산청사랑상품권 환급액은 4억4510만원으로 집계됐다.

환급액 중 5900만원은 산엔청쇼핑몰이나 재방문을 통해 다시 지역내 소비돼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고 있다.

숙박을 동반한 체류형 관광도 두드러졌다. 여행 일정별로는 1박 2일이 47%, 2박 3일 이상이 43%로, 전체 참여팀의 90%가 숙박을 동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오는 16일부터 4차 사전신청을 접수한다.

여행 기간은 18일부터 12월10일까지이며, 환급 대상은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한 숙박비, 식음료비, 관광지 입장료, 체험비, 지역 특산품 구매비 등이다.

환급받은 모바일 산청사랑상품권은 2027년 4월30일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산청=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AI 특화 시범도시' 국비 지원 건의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은 5일 국회를 방문해 복기왕·전은수 국회의원과 잇따라 면담하고,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도로·하천·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모습.

영광군, 'AI 도장 플랫폼' 개발 본격화

산업부 사업에 선정… 19억 확보

명장 노하우 'AI 데이터'로 전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은 지역내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위치한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 전남분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제조업묵지기반 AI 모델개발(R&D)' 국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6억원을 포함한 총 19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하고 이모빌리티협동조합, ㈜비알테크팜이 공동 참여해 오는 2027년 3월까지 연구를 진행한다.

특히 영광군 시생산지원센터의 첨단 인프라를 전국의 도장(페인트칠) 명장 숙련 노하우를 AI 데이터로 전환하는 실증 현장으로 전격 활용하게 된다.

현재 자동차 도장 분야 명장들은 평균 연령이 55세 이상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전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도제 방식으로 이뤄지는 숙련공 배출에는 5~1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그동안 상용화된 AI 검사는 단순히 부품의 결함을 눈으로 '검출'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명장의 품질 판단 체계를 '진단-원인-처방-근거-신뢰도'의 5단계로 정형화해 결함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조치 방법까지 즉각 제시하는 지능형 도장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영광 시생산지원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약 4년간 정부와 전남도, 영광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대마산단내에 구축된 핵심 시설로, 중소기업들의 다품종 소량 시생산을 지원하는 시출·도장·가공·용접 라인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시생산지원센터는 기존의 단순 시생산 지원 중심에서 한 걸음 나아가 지역 중소기업들이 고도화된 기술을 다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는 '제조 AI 데이터 거점'으로 거듭나게 된다.

향후 이모빌리티협동조합 등과 협력해 선박, 산업기계 등 다른 도장 산업 분야로도 성과를 확산할 예정이다.

영광=장수영 기자 jsy@siminilbo.co.kr

경남도특사경,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뿌리뽑는다

9일부터 기획수사… 무등록 정비업체 집중 단속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특사경')이 오는 9일부터 12월18일까지 6주 동안 무자격 자동차 정비업체의 구조변경, 관금·도색 등 불법 정비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구조변경이나 관금·도색 작업은 차량의 안전성이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업이나 자동차제작자로 등록한 업체에서 이뤄져야 한다.

무등록 정비업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저가의 수리비용이나 기술력을 내세워 광고한 뒤 차량의 입고를 받아 비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하거나 주요 공정을 누락해 정비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차량 결함이나 도로에 부속품이 떨어져 나가 2차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또한 자동차 손상 부위의 정비를 위한 도장 작업을 할 때도 제대로 된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아, 도심 한복판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을 배출해 도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 특사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 검색, 관련 업종 현장 탐문 등을 통해 무등록 정비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해 관계 법령에 따라 송치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창원=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해남군, 인천국제공항 직행 노선 호평

고속버스 1日 왕복 1회 운행

해남 출발·도착 이용객 7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지난 10월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해남~영암~인천국제공항 간 고속버스 노선이 운행 초기부터 양호한 이용 실적을 보이며 군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노선은 해남에서 영암을 거쳐 인천국제공항 제1·2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하루 왕복 1회 운행하고 있다. 10월 한달간 예매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215명이 이용했으며, 이 가운데 해남 출발 및 도착 이용객은 159명으로 전체의 약 74%를 차지했다.

해남군민 이용객은 하루 평균 5.1명으로 운행 초기임에도 해남군민의 이용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신규 노선 개설에 대한 기대가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해남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려는 군민들은 목포나 광주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 공항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노선 개설로 해남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해남에서 자정 무렵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이른 새벽 도착하는 운행 일정으로, 해외여행객의 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심야시간대 해남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려는 군민들에게도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기존 심야시간대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 불편을 완화하고, 공항 이용과 수도권 이동을 아우르는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외여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공항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보다 편리한 해외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9~15일 개관 23주년 행사

순천시 기적의도서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는 기적의도서관에서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관 23주년 기념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 주간은 도서관의 스물세 번째 생일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고, 도서관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기적'을 주제로 강연, 공연, 체험, 전시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개관 기념일인 10일에는 '이불 속에 쏙'의 박서현 작가를 초청해 자녀에게 그림책을 생생하게 읽어주는 방법과 그림책을 활용한 놀이법을 알아보는 강연이 진행된다. 이어 같은 날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율동 동아리팀(구름아이)과 함께 부모와 아이가 율동 놀이를 통해 교감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순천=이문석 기자 lms@siminilbo.co.kr

내일 월산상가 '상다리 펴는 날'

홍성군, 다채로운 문화공연

충남 홍성군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과 주민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7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홍성읍 월산상가 쌈지주차장 일원에서 '제4회 월산상가 상다리 펴는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다리 펴는 날'은 월산상가 번영회가 주최·주관하고 군이 후원하는 행사로, 지역 상인과 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월산상가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 상권이 단순한 소비 공간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통해 방문객의 발길을 이끌어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행사장 메인무대에서는 오후 4시부터 싱어송가수 안정이와 정호영의 공연을 시작으로 공연팀 여명, 싱어송가수 푸른달·김재훈·이승한, 색소폰니스트 김만규 등 다양한 출연진이 무대에 올라 풍성한 문화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홍성=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보성군, 11일부터 공공비축미곡 매입

총물량 7658톤·19만 포대

40㎏당 중간정산금 6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은 오는 11일부터 특량면을 시작으로 12개 읍·면·별 공공비축미곡 포대벼 매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비축미곡 총 매입 물량은 약 7658톤으로 40㎏ 기준 19만 1453포대(일반벼 5만7301포대·산물벼 6만7010포대·친환경 6933포대·가루쌀 2만9817포대·수급조절용 벼 참여 농가 인센티브 3만 392포대)이다.

매입 가격은 포대벼의 경우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10~12월까지 전국 산지 쌀값 평균가인 수확기 가격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물벼는 포장이 없는 상태로 매입하므로 포대벼 매입 가격에서 포장비용(818원/40㎏)을 차감한 가격이다.

매입 대금은 산지 쌀값이 결정되기 전에 중간정산금 형태로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6만원/40㎏을 우선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쌀값 확정 후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에도 품종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 제도'를 실시하며, 군은 '새청무'와 '조평1호' 품종만 수매한다.

보성=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실무 교육을 듣고 있다.

서산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AI 활용 실무교육

충남 서산시는 지난 4일 서산문화복지센터 대공연장에서 지역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강화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노인 돌봄 등 대면 업무가 많은 종사자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서 작성 등 업무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김근태 비영리마케팅연구소 대표를 강사로 초빙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 ▲장기요양기관 업무 활용 사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AI 활용 방법 등이 다뤄졌다. 또한 AI를 활용한 문서 작성과 행정업무 효율화에 대한 실습이 이뤄졌다.

시는 이번 교육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행정업무 효율을 높여, 보다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도 장기요양 현장의 수요와 변화하는 업무 환경을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산=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장흥군, 공직자·기관 '장흥쪽파 사주기'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은 쪽파 출하량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파 재배농가를 돕기 위해 공직자와 농협 등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6년산 장흥쪽파 사주기'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쪽파는 고온 및 잦은 강우로 생육이 빨라지면서 김장철까지 출하를 늦추기 어려워 조기 출하가 늘어난 데다, 출하량 증가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지난 10월 기준 쪽파 도매가격은 kg당 1587원으로, 전년동기 5107원 대비 약 68.9% 하락해 재배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군의 쪽파 재배규모는 47농가, 50.5ha로,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선한 장흥산 흙쪽파 한 단(1.5kg)을 3000원에 판매하며, 공직자와 농협 등 유관기관의 자율적인 구매 참여를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장흥=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영암군청년센터, 13일 '청춘클래스 요리 체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청년센터 달빛청춘마루가 오는 13일 운영하는 '11월 청춘클래스 요리 체험' 참가자 20명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궁중 로제떡볶이를 직접 만들며 요리를 배우고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13일 오후 1~3시 달빛청춘마루에서 전남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해 진행된다.

군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19~49세 청년이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10일까지 달빛청춘마루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며 요리의 즐거움을 느끼고, 일상에서 잠시 여유를 갖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예산군문예회관, 24일 '쇼 미 더 장구 프로젝트'

충남 예산군문예회관은 전통공연예술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우수작품 지역 순회공연의 두 번째 작품으로 '쇼 미 더(Show me the) 장구 프로젝트'를 오는 24일 오후 7시 문예회관에서 선보인다.

'쇼 미 더 장구 프로젝트'는 전통 풍물악기인 장구와 첨단 영상 예술을 접목한 몰입형 공연으로 화려한 발광 다이오드(LED)를 활용한 설장구 공연과 실시간 영상이 어우러져 역동적인 장면을 선사한다.

전통 장단의 흥겨움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관객에게 색다른 공연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비롯한 지역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덜고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이번 공연에 한해 청소년 전석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과 고등학교 재학생이며, 공연 당일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등 나이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면 된다.

예산=김의석 기자 kus@siminilbo.co.kr

청양소방서, 군민과 함께하는 화재 예방 활동

충남 청양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이달 한달간 '제79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화재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화재 예방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지역별 화재 취약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추진 내용은 ▲의용소방대와 함께하는 불조심 캠페인 ▲요양원 등 노유자시설 화재 안전교육 ▲마을회관·전통시장 등 생활밀착형 소방안전교육 ▲소방차 퍼레이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등이다.

특히 청양시장과 대치면 장곡사 일원에서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가 함께하는 캠페인을 통해 화재 예방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요양원 등 화재 취약시설 관계인에게 안전메시지를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SNS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전기·난방용품 안전사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화재시 대피요령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청양=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